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5. 백두대간

5. 백두대간

FSC PRINTED WITH SOY INK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오대산의 다섯 번째 이야기

백두대간과 탐방로

백두대간이란 무엇인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입니다. 백두산 병사봉에서 시작해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약 1,400㎞의 크고 긴 산줄기로, 백두대간은 강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과 함께 삼국시대부터 맡아 온 행정과 지역의 경계 역할을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유래

백두대간을 처음 기록한 문헌은 10세기 초 고려 승려 도선의 〈옥룡기〉입니다. 〈옥룡기〉에는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일어나 지리산에서 끝났으며 물의 근원, 나무, 줄기의 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문헌은 이중환의 택리지로, 이 문헌에 "대간은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뻗었으며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에까지 통하여 하나의 맥령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백두대간(大幹)과 백두정간(正幹)을 처음 사용한 문헌은 이익의 〈〈성호사설〉〉로, 이 책에서는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조종산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산맥 상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1770년에 신경준이 〈〈산경표(山經表)〉〉에서 백두대간에 대해 그 용어뿐 아니라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산맥의 연결 상태, 관계 순서를 표로 제시한 것이 지금에 이릅니다.

오늘날 백두대간이 지니는 의미

백두대간은 역사적으로 천 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온 우리 민족의 지리인식체계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발굴된 후 많은 사람들이 백두대간에 오르는 것을 마루금 종주로 인식하여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자 능선이 훼손되기도 하고, 대규모로 개발하여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백두대간의 보호가 필요해지면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란 산계(山系)와 수계(水系)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 영역의 개념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오대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중심축에 위치하며 이곳에는 한반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의 중심 발원지 우통수가 있습니다. 오대산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수분 경계의 최상부에 위치합니다.

오대산을 통과하는 노인봉과 진고개 사이의 구간은 해발 1,000m가 넘는 백두대간 구간이지만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진고개부터 두로봉까지의 구간은 능선을 따라 길이 평탄하게 이어져 다른 구간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구간이 길고 오르막과 내리막 길의 연속이어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곳입니다. 백두대간 오대산 구간은 생태계의 보고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대간, 1정간, 13정맥(正脈)이란?

백두대간(1대간), 장백정간(1정간), 청북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임지구 예성남정맥,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 (13정맥)을 의미합니다.



